



여아의 난투극 속에 열린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김형오 의장 대신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키려하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의정서로 몸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사별...빈곤 여성층 어떡하나

45%가 월 100만원 미만 소득... 일자리 대책 시급

광주여성노동자회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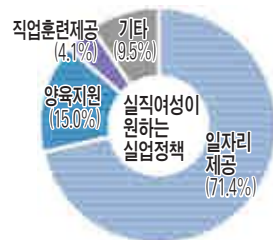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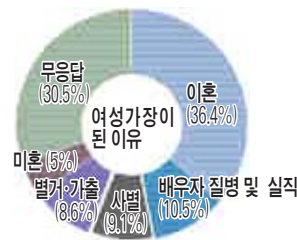
2009 상반기 실직여성 상담 사례 분석

(자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지역 실직·빈곤 여성 가정에 대한 일자리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여성노동자회 오영이 정책위원은 23일 열린 '여성일자리 대책 토론회'에 앞서 22일 미리 배포한 '실직 여성 상담으로 본 실업대책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에 상담차 찾아온 실직·빈곤 여성 220명 가운데 64.6%는 이혼·사별·실직 등으로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인 가정이었다고 밝혔다. 월 평균 가구 수입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45.8%에 이를 정도로 빈곤층이 대다수였다.

실질적인 가정이 된 사유는 이혼이 3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우



자 질병 및 실직 10.5%, 사별 9.1%, 별거·가출 8.6% 등의 순이었다. 전직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었고, 월 100만원 미만을 받았다 여성도 58.6%나 됐다. 이들 중 71.4%는 정부나 지자체가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육(보육, 방과후) 지원(15.0%), 직

업훈련 제공(4.1%)을 요구하는 여성도 많았다.

오영이 위원은 "실직·빈곤층 여성 대부분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미디어법 난투극 속 국회 통과

야당 "재투표·대리투표 원천무효" 반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의원직 사퇴 선언... '정국 급랭' F1법 통과 난망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통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3-4-5면>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은 여야의 극한 대결속에서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으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등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속하게 냉각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표결 과정에서 방송법의 경우 재투표가 실시되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법안 통과와 적법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주변 대처사태로 입장하지 못하자 한나라

당 소속 이윤성 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직권상정, 표결 처리에 붙여 각각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13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격적으로 본회의장에 진입했으며 오후 3시께 이윤성 부의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있던 민주당 지지석을 뚫고 들어와 의결 정족수를 넘겼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국회의장석 주변으로 "직권상정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디어 관련 법 표결 저지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김형오 의장은 앞서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퇴권을 넘겼으며, 이 부의장은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 법안 표결

을 강행했다.

신문법의 경우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기권 10표로,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기권 3표로, IPTV법은 재석 의원 161명 중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이 부의장은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2표·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방송법의 경우 재석 의원 부족으로 재투표가 실시되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등 향후 적법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 간의 불신과 갈등 등은 더욱 증폭되면서 향후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장 민주당은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이 통과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여권은 내각과 청와대 개편 등의 국정해신과 국민통합 등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에 따른 후폭풍의 최소화해 나갈 전망이다.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던 본회의장 앞 중앙을 등 비웃듯 곳곳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 한나라당이 이날 미디어 관련법안을 강행처리함에 따라 전남의 최대 현안 법안인 F1 지원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기아차 전면 파업

9년만에 올스톱... 금호타이어는 25일부터

기아차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협상에 합의하지 못해 2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기아차가 공장 가동을 온 종일 멈추는 전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 2000년 4월 이후 9년만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금호타이어

노조도 25일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 기사 3-8면>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23일에는 전면파업을 하고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30일 파업 선포식을 하고 주야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19년 연속 파업이라

는 '불명예'를 기록한 데 이어, 2주째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8만7천709원(5.5%) 인상, 생계비 부족분 200% 이상, 주간 연속 2교대(8+8) 즉시 시행 및 월급제 시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임금을 동결하되 성과급 200%와 200만원을 지급하고 주간연속 2교대(8+9)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 이번 주말까지 1만8천여대의 생산차질과 3천300여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50% 감산투쟁을 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조도 25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GM대우는 임금동결을 골자로 한 임금교섭 합의안이 22일 노조원들의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과학고 정원 30%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

내년 입시부터

내년에 치러지는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에서 광주·전남 등 전국 19개 과학고가 총 입학정원의 30% 이상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2011학년도 과학고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9개 과학고의 전형별 모집비율(인원)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1학년도 과학고의 총 모집인원은 1천520명이며, 이 중 31.4%인 475명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나머지 68.6%인 1천45명은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한다.

전형시기는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입학사정관 전형은 내년 7월부터 11월경 사이, 과학창의성 전형은 내년 10~12월로 정해졌다.

는 '불명예'를 기록한 데 이어, 2주째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8만7천709원(5.5%) 인상, 생계비 부족분 200% 이상, 주간 연속 2교대(8+8) 즉시 시행 및 월급제 시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임금을 동결하되 성과급 200%와 200만원을 지급하고 주간연속 2교대(8+9)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 이번 주말까지 1만8천여대의 생산차질과 3천300여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50% 감산투쟁을 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조도 25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GM대우는 임금동결을 골자로 한 임금교섭 합의안이 22일 노조원들의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여객배달 패키지... 뷔페/양식 27,000원 부터 (세금포함) 예약실 ☎: 228-4711-2 대표전화 ☎: 228-8009

